지역 **소식통**

부안 주산면, 코로나 3차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주산면은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산보건지소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추가 방문접종으로, 백여명의 주산면 어르신들은 당일 보건지소를 찾아 사전예약 없이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었으며 거동 및 이동수단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마을이장 및 사회단체장들의 차량지원 봉사로 무사히 귀가조치를 할 수 있었다.

주산면사무소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마을별로 접종 시간대를 배분하고 접종 후 어르신들의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3일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 수상

고창군이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 주관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 기관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총인구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수도 운영·관리·정책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 세부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고창군은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하천방류 수질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질관리와 악취저감 등을 달성해 호평을 받았다.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을 깨끗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공 하수도 정책 준수와 하수도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속 가능한 부안시대를"

부안군, 내년도 국·도비예산 5760억원 역대 최대 성과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760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은 국가시행사업 2701억원, 군시행사업 3059억원 등으로 지난해 5703억원에 비해 57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이달 초 확정된 송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격포항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등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중장기 신규사업 억제기조와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방문 등 대면활동에 한계가 있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군은 예산 순기별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을 작성해 대응하고 전북도·지역구 국회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 별 사업 1대 1 매칭을 통해 국가예산 3년 연속 5000억원 달성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 및 세종사무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국회단계까지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 및 예결위 신영대 국회의원, 환노위 안호영 국회의원 등과 연대를 강화하며 발품행정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총사업비 62억원),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15억 1000만원(총사업비 40억원), 부안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총사업비 54억원), 부안 변산~고창해리(국도77호선) 노을대교 건설 1억원(총사업비 339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가 보장되며 지역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확보한 국비 사업들도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억원(총사업비 240억원), 부안 주상천 하천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278억원) 등이 반영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혁명정신 잇는 국제컨퍼런스 연다

17일 전주 라한호텔서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세계 각국의 농민혁명 도시들을 초청해 함께 사건을 기억하고, 의미를 공유하며 미래를 위해 연대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세계적으로 부패와 무능함에 맞서 투쟁한 근대혁명 도시들의 역사를 모아 상호 교류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도올은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못한 세계인들을 위해 한국 근현대 민중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동학의 흔적과 시대정신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주제발표와 토론 1부에서는 '한국의 고부 농민봉기와 일본의 농민혁명'을 주제로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과 일본 동양대학 '고바야시 데쓰야'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농민혁명과 기억'을 주제로 중국 '궈뤄자' 중국현대사연구원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3부는 독일의 '토마스 뮐러' 뮌하우젠 박물관장과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 체 게바라 연구가가 나서 '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남미 체 게바라의 혁명정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연 원광대 교수를 좌장으로 3명의 토론자가 나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 '고부 농민봉기 기념사업의 방향과 고부 관아 복원사업',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관계자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에서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래로부터의 대혁명'으로 그 혁명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간부회의 주재 주요 업무 추진 당부

유진섭 시장이 13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시한 후 철저한 업무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1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요청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정읍시, 202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24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는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신규농가도 만 50세 이하에 한 해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은 1~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진행되며 지원한도액은 축종별·규모별 상이하다.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의 신축과 개보수, 장비의 구비 및 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축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사슴, 말 등 13종이다.

2022년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존 단년차 사업에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과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 설치 시 지원단가 10%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을 마친 농가 중 예산 현황과 적격 여부, 지원내용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년 연속 전국 귀농·귀촌 정착 1위

고창군이 올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전국 8개 지자체 체류형 센터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귀농·귀촌 정착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인 고창군은 26세대 34명 입교 중 19세대 32명이 정착하면서 73%의 정착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55% 보다 18%가 높다.

부안면에 위치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80억원의 예산으로 체류형 주택 30세대, 교육관 2동,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하우스, 농기계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운영중이며, 109세대 166명이 입교해 77세대 129명이 고창군에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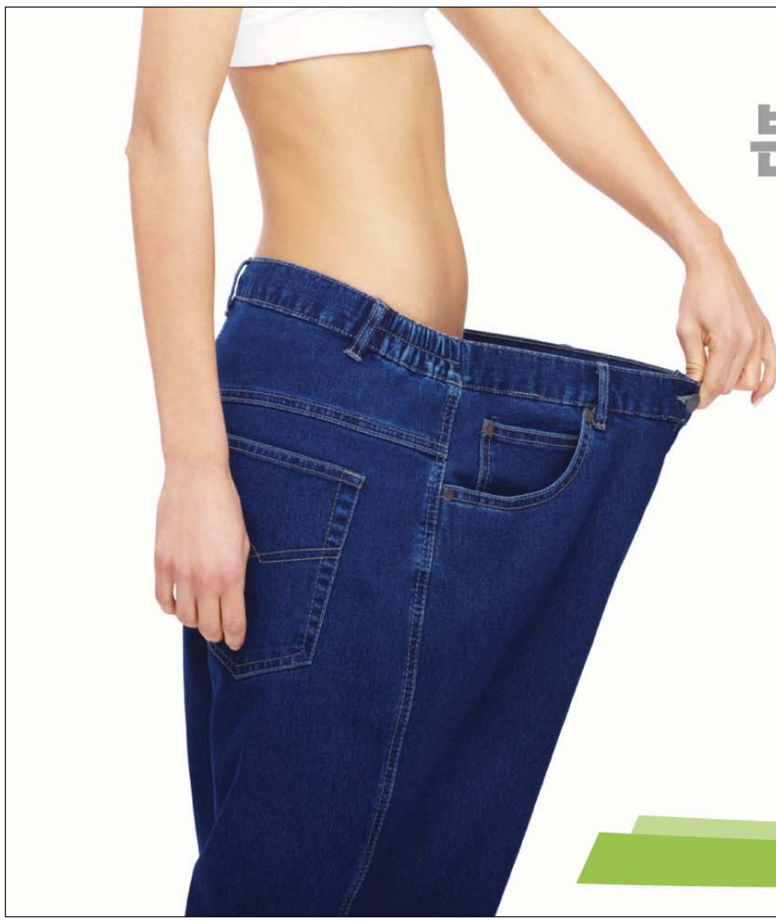
올해 체류형 입교생 모집결과 39세대가 신청해 최종 30세대를 선발했으며, 선발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00여 시간을 기초영농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였고, 고창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수료했다.

이에 더해, 입교생들과 공동실습하우스에서 재배한 멜론,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따뜻한 고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고창에는 복분자를 비롯해 수박, 체리,멜론,땅콩 등 다양한 특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 "논농사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입소문에 열정 가득한 예비 귀농인들의 관심이 높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